

임창규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

“따뜻한 세정으로 서민경제 지원”

전통시장·상가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 등으로 납세자들의 경제 여건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때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사업하기 편한 세정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세정’ 행정을 펼쳐겠습니다.”

임창규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0일 “경제 인프라가 빈약한 가운데 지역경제를 지키며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세부간섭 완화와 성실 납세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를 최고로 모시는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19개 전통재시장과 영세집단상가 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서민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청의 역할에 대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세정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 소재 기업의 세부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 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기업, 장기 성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정기 세부 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전통과 옛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전통주·장류·목기·도자기 제조업자 등을 전통·향토업소로 지정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부간섭을 배제하고 납세담보도 면제 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을 위해서는 ‘소통과 맑고 투명한



인사’를 강조했다. 임 청장은 “상하 직원 모두가 격의 없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통해 조직 발전을 위한 건의나 업무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직원 개개인의 작은 고민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연·지연 등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직인과 화합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과를 승진·인사·포상에

공정히 반영하고 스스로 일하는 직원, 공정하게 업무처리 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발전방안에 대해 임 청장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상생세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납세자들을 최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헤아리는 헌신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납세자로부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목표출신으로 목표상고와 한양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목포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제청 법인세과장,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무역의 날 수출탑·포상 전수식

제49회 무역의 날 전남지역 수출탑과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10일 영암군 ‘현대호텔 목포’에서 무역업계, 지자체,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전남지역 수출탑 수상업체는 3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SPP올촌에너지 등 모두 20개사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현대모비스 ISO 26262 인증 획득

안전성 국제표준...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모비스는 10일 경기 용인 현대모비스연구소에서 독일의 권위있는 국제표준 인증기관 TÜV SUD로부터 개발 중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과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ISO 26262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표준인 ISO 26262 인증은 소프트웨어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설계로 전장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체를 통틀어 ISO 26262 인증 획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ISO 26262 인증 획득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14년부터는 메카트로닉스 개발 전 품목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엔 에어백 제어장치(ACU)를 비롯해 4개의 안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장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표준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11년 11월 ISO 26262를 제정했다. ISO 26262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장품은 안전성이 완성차업체들의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현대모비스는 ISO/TS 16949, 환경 국제표준 ISO 14001, 정보보안 국제 표준 ISO 27001 등을 획득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국내 자동차 생산 470만대...올보다 2.2% 증가 수출은 3.1% 늘어...기아차 광주공장 사상 최대 수출

내년 국내 자동차 생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470만대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와 한-EU FTA 추가 관세 인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3년 자동차산업 전망’에 따르

면 내년 내수 시장 규모는 국산차 140만대, 수입차 15만대 등 총 155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산차의 국내 판매는 올해 5.1%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EU 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 출시, 잔재 대체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 지속 등으로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산차의 수출은 올해보다 3.1% 늘어난 330만대로 예상된다. 수출액은 7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추가 관세 인하, 국

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 수출전략차종 투입, 기아차 광주공장의 공급능력 확대 등으로 사상 최대 수출이 전망된다.

수입차 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차 시장 규모는 올해 13만2000대로 지난해보다 17.4% 성장한데 이어 내년에도 13.6% 신장된 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지난달 국내 생산은 44만4049대로, 역대 월별 최대치를 기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출 중소기업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1102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 38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평균 1102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플라스틱 제조업이 손익분기점 환율이 1003원으로 환율 하락시 대응력이 가장 높았고 가전은 1127원으로 나타났다.

통화별 손익분기점 환율은 미국 달러 1102원, 엔화 1316원(100엔당),

유로화 1403원이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협상력 등 채산성 제고 역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손익분기점 환율이 1059원으로 43원 낮게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환율 하락 대책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현지생산 확대, 수출 단가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5%에 달했다.

코스피지수	1957.42 (-0.03)
코스닥지수	489.59 (+0.37)
금리 (국고채 3년)	2.83% (+0.02)
원·달러 환율	1079.00원 (-2.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Canon 수지의 착한 선물 페스티벌

행사기간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01월 10일

행사제품 구매 후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마친 고객 전원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EOS 60D

EOS 650D

EOS M

EOS M

PowerShot

PowerShot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